

다양성·미래·소통... 예술이 된 'BTS 철학'

세계 900여개 매체 몰려 보도전쟁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이 성지로
런던·베를린 등 5개 도시 5색 테마
작품에 녹여진 BTS '또 하나의 역사'

'방탄소년단과 순수예술의 만남!'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22명의 현대미술 작가와 손잡고 펼치는 글로벌 전시 프로젝트 '커넥트, BTS'(CONNECT, BTS)를 28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에서도 막을 올렸다. 15일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개막한 이번 전시에서 시선이 쏠려 있다. "세계 900여개 매체가 보도하고 미술관에 국경을 초월한 많은 관객이 몰리는 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일 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술관 풍경 자체를 바꿨다"는 총괄 기획자 이대형 아트 디렉터의 설명은 과장이 아니다. 전시장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벌써부터 전 세계 '아이들의 성지'로 꼽히고 있다. 팬들의 호기심은 방탄소년단과 현대미술이 어떻게 어우러지느냐는 관심에서 출발한다. 각 작가들은 방탄소년단의 예술 철학에 공감하며 각 나라별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창작

서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안무에서 영감을 받은 영상작품과 빛과 안개를 이용한 설치작품 등이 전시 중이다. 영국



28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방탄소년단의 예술 철학을 현대미술로 구현한 글로벌 전시 프로젝트 '커넥트, BTS(CONNECT, BTS)'가 개막한 가운데 관람객들이 강이연 작가의 '비온드 더 신'(오른쪽 사진) 등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뉴스시스



●런던...카타르시스

영국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처음 시작한 전시의 주제다. 덴마크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제이콥 스티븐슨이 실제 야생의 숲 속 풍경을 3D로 스캔해 작품으로 선보였다. 숲의 성장과정을 디지털 시뮬레이션하며 관람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방탄소년단은 기획의 밑그림에 참여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미래

아르헨티나 북부의 소금사막 살리나스 그랑데스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광활한 설원과 염전 위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와 태양열, 바람만을 이용한 공중 부양장치를 띄운다. 토마스 사라세노가 미래사회를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다.

●뉴욕...소통

다음달 4일부터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피어3에서 열리는 마지막 전시다.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폼리가 18km에 달하는 알루미늄선으로 구성된 입체조형물을 선보인다. 관람객이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방탄소년단이 아이들과 적극 소통하는 것처럼 관람객이 함께 걸으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이정민 기자 annjoy@donga.com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기소 양현석 상습도박 혐의 수사 계속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양현석(49)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위처벌에 관한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장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은 이른바 '환치기' 등을 통해 조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승리와 함께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가수 최중훈(29)을 뇌물공여의사 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30)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현석 관련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생충' 佛 세자르상 후보에 올라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세자르상 후보에 올랐다. 세자르상을 주관하는 프랑스영화 예술아카데미는 30일 '기생충'이 2월28일 프랑스 파리 살 플레엘에서 열리는 제45회 세자르상 외국어영화상 후보가 됐다고 밝혔다. 세자르상은 1976년 제정된 프랑스 최고 권위의 영화상으로, '프랑스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린다.

'남산의 부장들' vs '히트맨'...이번 주말 진검 승부

이병헌의 '남산의 부장들'과 권상우의 '히트맨'이 흥행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한다. 설 연휴 관객의 호응 속에 박스오피스 1, 2위에 나란히 오른 두 영화가 개봉 2주째 주말을 맞는 31일부터 2월2일까지 영화의 진짜 흥행을 판가름하는 맞대결에 나선다.

1970년대 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 부장들을 통해 10·26사건을 그린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은 22일 개봉해 30일까지 약 390만 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모으는 데 성공

했다. 설 연휴 하루 평균 6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위력을 발휘한 영화는 완성도와 이병헌, 이성민, 광도원 등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로 입소문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손익분기점인 500만 돌파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권상우의 코디미 '히트맨'(감독 최원식·제작 베리굿스튜디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30일까지 약 180만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를 지키고 있다.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탈출한 암살요원

두 영화 모두 손익분기점 눈앞
신종코로나 확산 여부가 변수

의 '짤내' 나는 분투를 코미디로 버무려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손익분기점(240만)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히트맨'은 설 연휴 '남산의 부장들'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관객수를 기록했지만 개봉 2주째에 접어들어 예매율 격차를 좁히고 있다. 실제로 30일 오후 3시 현재 '히트맨'의 예매율은 18.8%로, '남산의 부장들'(25.1%)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다만 두 영화가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남산의 부장들 히트맨

넘어야 할 '변수'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부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탓에 극작가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쪽 제작진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우와- 센추리 냉·난방기 사셨네요. 요즘 인기라는 걸 믿을 줄이요?

당연하지 센추리 냉·난방기는 45년 전통의 전문업체인 센추리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냉·난방 효과가 뛰어나고, 구매조건도 매우 좋아, 난방부로 구매했지

사장님이 구매하신 전기 36개월 할부는 초기비용 부담없이 무보증 무담보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설치 가능합니다.

특히 업소용은 불비와 방화, 소방 등 여러 안전이 포함됩니다. 센추리는 이 4가지와 체계적인 A/S시스템과 사후관리까지 메드합니다. 저희 에너지 설계 전문가들이 무료로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장 설, 가장 유리한 구입조건, 설치조건, 응급 대응 보상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센추리 냉·난방기가 최고구나-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쓰시고 확실한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 냉방·난방 성능이 똑같은지? / 45년 전통의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 회사인지? /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납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